

2010 Vol.2. 夏

경기문화즐겨찾기



한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



제8회 경기도 청소년 민속예술제

일시 : 2010. 9. 9(목) ~ 10(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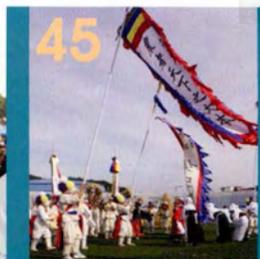
장소 : 시흥시 실내체육관



Vol. 2

CONTENTS

02	지역문화의 DNA를 찾아 가는 '경기문화 상징 토론회'	
08	문화원 길라잡이	경기도 역사인물 축제의 현장을 가다 - 광명오리문화제, 안산성호문화제, 용인포은문화제
15	2010 유네스코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	
20	기전문화를 찾아서	경기도 전통예술 교육용 콘텐츠 개발과 문화원 I
26	31色 문화원	시·군 문화원 봄행사 스케치
34	문화와 지역사회	문화품앗이, 성남문화통화 '넘실'
40	세계문화유산 '조선왕릉' 아는 만큼 보인다	
45	경기문화 캘린더	경기도 문화원 여름행사 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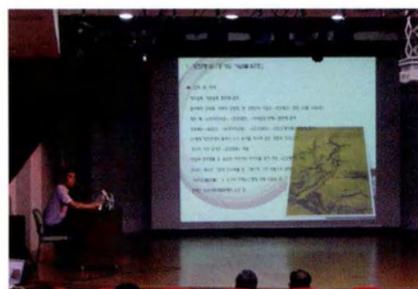




‘경기문화 상징 토론회’



경기문화의 정체성을 찾는 시작의 계기 마련
지역문화의 DNA를 찾아 31개 시군으로 확대 진행 예정



한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는 경기문화재단과 공동으로 지난 6월17일(금) 경기문화재단 3층 다산홀에서 '경기문화 상징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 시·군의 자연과 역사, 인문 분야에서 문화유산원형이 될 만한 상징을 추출·발표하고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이에 대한 활용 방안을 모색해 보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경기도지회 오용원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경기도의 기풍을 형성하는 문화적 상징성을 부여하는데 목적을 둔 오늘의 토론회가 경쟁력을 가진 ‘문화유산원형’ 상징을 발굴하여 고품질의 디지털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밝혔다.



토론회는 용인·양주·김포·안산·이천·의왕·시흥·고양·파주·성남문화원에서 발표자들이 참석해 각 지역별로 음악, 미술, 무용, 문학, 음식, 의복, 주택, 종교, 역사적 인물, 사상, 유·무형 문화재, 향토지적 재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굴한 문화상징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전문가의 논평순으로 진행되었다. 처음으로 발표에 나선 김장환 용인문화원 사무국장은 용인시 문화원형 상징으로 할미산성, 석성산 봉수, 처인성, 정몽주 선생 묘소, 한국민속촌 등을 선정하여 발표하였는데, 특히 할미산성과 석성산 봉수를 발굴 및 복원하고 용인의

진산인 석성산을 연계하는 역사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용인의 역사적 자긍심을 높이고 동서부가 문화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화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역설하였다.

이어 양주시(안용현 양주문화원 사무국장)은 「회암사지, 양주 별산대놀이」, 김포시(백한승 김포문화원 사무국장)은 「우저서원, 문수산과 산성, 애기봉, 재두루미」, 안산시(이현우 안산문화원 사무국장)은 「성호 이익선생, 둔배미놀이, 대부도, 잣머리 성황제」, 성남시(윤종준 성남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 상임연구위원)은 「분당중앙공원, 분당 오리뜰농악과 판교쌍용줄다리기, 모란시장, 둔촌 이집 선생, 율동공원, 탄천」, 이천시(이인수 이천문화원 사무국장)은 「반룡송, 설봉산성, 장위공 서희 유적지, 이천도자기, 이천쌀」, 의왕시(오세진 의왕문화원 사무국



장)은 「하우현성당, 청계사, 임영대군묘, 백운호수, 모락산성」, 시흥시(이규수 시흥문화원 계장)은 「소래산, 판곡지, 갯골생태공원, 강희맹묘」, 고양시(정회룡 고양문화원 사무국장)은 「고봉산습지, 행주산성, 고려 공양왕과 삼살개」, 파주시(서교송 파주문화원 사무국장)은 「용미리 석불입상, 장단콩, 기호학과, 울곡이이, 임진강」등에 관해 발표하였다.

	자연유산	역사유산	인문유산
고양	고봉산, 공양왕과 삼살개 행주산성에서 북한산 사기막골까지		
김포	애기봉, 재두루미	우저서원, 덕포진 문수산성, 장릉	
성남	탄천		분당중앙공원, 모란시장 분당오리뜰두레농악 판교쌍용거줄다리기 둔촌이집선생, 율동공원
시흥	소래산, 갯골생태공원	판곡재, 강희맹묘	
안산	대부도		성호이익선생유적 둔배놀이, 갯머리성황제
양주		회암사지	양주별산대놀이
용인		할미산성, 포은선생묘 처인성	한국민속촌, 한택식물원
의왕	백운호수	청계사, 화우현성당 모란산성, 임영대군묘	
이천	반룡송	설봉산성, 서희	이천도자기, 이천쌀
파주	임진강	용미리석불입상	장단콩, 기호학과

이어진 논평 및 토론에서, 신광철 한신대 중국문화정보학부 교수는 △거시적인 청사진으로 문화원형과 문화유산원형의 변별성, 문화유산원형의 상징의 개념, 문화유산원형의 보편 범주와 경기 문화유산원형의 특수 향상 등에 대한 기초연구 선행 필요성 △구체적인 설계도로써 경기 문화유산원형의 유형과 범주 설정, 경기 문화유산원형의 외연 설정을 위한 기초 작업 병행 △활용을 전제로한 발굴 작업 필요 등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였다.

이택광 경희대 영미어학부 교수는 유럽 각 지역의 엠블렘을 소개하면서 경기도 각 시군이 좀 더 나은 엠블렘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은 과거의 역사 못지 않게 현재성에 주목하는 것으로 문화유산에 담겨 있는 내력과 현재의 지역성이 적절하게 결합하는 상징을 추출하는 것이라고 논평했다.

이장섭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상임감사는 문화상징을 찾는 것이 이제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라고 하면서 문화상징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객관적인 기준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였고, 최종적으로는 지역 주민들의 동의 절차를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심승구 한국계대 역사학과 교수는 지구촌의 근대화, 세계화, 세계지역화의 역사 과정에서 지역문화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작업의 중요성을 전제하면서 문화상징 개발을 위해 △문화상징을 해야 할 철학을 분명히 하고 △문화상징의 개발을 위한 매뉴얼 작성 △지역문화의 상징을 발굴하는 작업에 지역주민과 전문가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논평했다.

문화유산 원형을 시·군의 특화된 문화자원으로 개발하고 지역별 문화브랜드를 만들어가는 초석을 만드는 의미를 가진 이번 '경기문화상징 토론회'는 31개 시·군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

앞으로도 경기도지회와 경기문화재단 경기학연구실은 이 사업을 31개 시·군으로 확대하여 진행할 계획이고, 2011년에는 이 토론회의 성과를 집대성한 성과물을 발표할 예정이다.



경기도 역사인물 축제의 현장을 가다

광명문화원 오리문화제, 안산문화원 성호문화제, 용인문화원 포은문화제



김 장 환
용인문화원 사무국장

祝과 祭의 의미를 담은 '축제'

축제(祝祭)는 '경사스러운 날'과 '제사 드리는 날'의 합성어이다. 이 단어를 한자로 풀어보면, 사람(人)이 말(口)로 신에게 비는(示) "축(祝)"과 제물(肉)을 손(手)으로 제상(示)에 올려놓고 제사지내는 "제(祭)"가 합쳐진 낱말이다. 즉 어원상 경사스러운 어느 특정한 날을 기념하여 인간이 신께 봉사 헌신하는 의식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축제를 사전적 의미에서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로 함축할 수 있다. 축하하여 제사지낸다는 의미와 경축하여 벌이는 큰 잔치나 행사를 이르는 말로 정의되어 있다. 과거 전통축제의 경우 전자(축하+제사)의 의미에 부합되고, 현재 세계 여러나라에서 성황리에 개최되고 있는 축제는 후자(경축+행사)의 의미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의 지역축제는 종교 제례적인 특징을 상실한 채 유희적이고 놀이적인 부분이 강조되고 있다. 흔히 산업화와 세속주의는 축제의 종교성을 박탈하고 세속화를 가속화시켰다. 즉, 과거 전통사회의 축제가 인간이 신에게 봉헌하는 의식을 중요시했다면, 오늘날 산업화사회의 축제는 제사의식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오락적인 요소와 일탈적인 분위기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있다. 축제로 인하여 잠시나마 인간이 단조로운 삶에서 벗어나 휴식과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오락적 기능이 강화된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나라 지역축제는 탈일상성과 오락성이 강화된 종합축제로 변모하게 되었다. 그렇다고 오늘날의 지역축제를 제(祭)가 완전히 사라지고 축(祝)만이 남은 것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으며, 여전히 축(祝)과 제(祭)가 포괄된 문화현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¹⁾

1) 이경보(2002), 이벤트학원론

‘祝祭’의 본질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역사인물축제

경기도에는 이러한 축제의 의미를 가지면서 역사인물을 주제로 한 다양한 축제가 있다. 그 중 봄에 진행되는 축제 중 광명문화원의 오리문화제, 안산문화원의 성호문화제, 용인문화원의 포은문화제는 지역의 역사인물인 오리 이원익, 성호 이익, 포은 정몽주를 주제로 한 축제이다. 각 각의 역사인물과 지역의 연관 관계는 아래와 같다.

먼저, 세 축제의 역사를 살펴보면 오리문화제는 1992년부터 시작하여 2010년에 19회를 맞이했고, 1996년부터 시작된 성호문화제는 15회째를, 2003년부터 시작된 포은문화제는 8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행사가 이루어

| 역사인물과 지역의 연관 관계

인물과 지역	역사인물과 지역의 연관관계
 <p>오리 이원익과 광명</p>	<p>광명시 소하동 1084번지, 옛 지명 오리마을. 4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시흥군 서면 제일 큰 기와집'이라고만 써도 우편이 들어왔다는 일대를 통틀어 가장 큰 이 터에는 오리 대감이 말년을 보낸 5칸짜리 집과 종가와 함께 박물관, 사원 등 관련 유적들이 자리 잡고 있다</p>
 <p>성호 이익과 안산</p>	<p>성호는 아버지를 여읜 뒤에 선영이 있는 안산의 침성리로 돌아왔는데, 침성리는 행정적으로 경기도 광주부에 속해 광주 침성리로 일컬어졌으나, 이른바 비래지로서 광주에서 과천·금천에 걸쳐 있는 안산군내에 있어 흔히 안산의 침성리로 불려졌다. 유해는 선영이 있는 침성리(현재 경기도 안산시 성포동)에 안장되었다.</p>
 <p>포은 정몽주와 용인</p>	<p>조선 태종 6년(1406) 포은 선생의 묘를 개성 풍덕에서 고향인 경북 영천으로 천장하던 중 지금의 용인 풍덕천동에 이르렀을 때 회오리바람이 일면서 명정이 날아 지금의 능원리 묘역에 떨어진 것을 하늘의 뜻으로 알고 이곳에 묘를 모신 데 기원하고 있다.</p>



여기는 장소를 보면 포은문화제의 경우 역사인물축제의 특징을 살려 시민들의 접근성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포은 선생 묘역과 그 주변에서 행사를 진행하고 있고, 성호문화제는 작년까지는 성호공원에서 진행하였으나 올해 부터는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장소를 호수공원으로 옮겼으며, 오리 문화제는 무대행사, 부대행사, 경연대회가 동시에 가능하도록 운동장, 체육관, 야외공연장이 함께 있는 광명실내체육관에서 진행하고 있다.



	오리문화제	성호문화제	포은문화제
시승격	1981년	1986년	1914년(용인군) 1996년(용인시)
최초개최시기	1992년	1996년	2003년
개최횟수	19회	15회	8회
개최시기	매년 5월	매년 5월	매년 5월 혹은 6월
장 소	광명실내체육관 일대	호수공원 일대	포은선생묘역 일대
행사기간	3일	2일	3일

선양행사를 기본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

고려 말부터 조선 후기의 역사인물을 주제로 진행하는 축제이므로 3개 문화제는 공통적으로 유교 의식에 기초한 제례행사를 기본적으로 운영하면서 일반적으로 지역축제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연행사, 체험행사, 전시행사, 부대행사, 경연대회 등을 진행하고 있다. 오리묘소 참배, 이익선생 숭모제, 고유제, 포은선생 추모제례 등의 선양행사를 진행하는데, 용인문화원의 경우 인간문화재의 집례로 종묘제례의 의식을 차용한 추모제례를 진행한다.





| 오리·성호·포은문화재 행사 프로그램

	오리문화재	성호문화재	포은문화재
메인행사	개·폐막식 공연	둔배미놀이시연	천장행렬
선양행사	오리묘소침배	이익선생 송모제	추모제례 천장행렬
학술행사	주민자치프로그램 워크샵	성호학술대회	포은학강의 총렬서원 향사체험
공연행사	시민동아리한마당 향토인물민회빈강씨 인형극 기형도시인기념 '포엠콘서트'	취타대퍼레이드 둔배미놀이	주민자치센터동아리한마당 가곡합창제 국악, 마당극공연
전시·체험 행사	한누리배움박물관 전통예절문화체험학교 다문화체험관 전통놀이문화체험	삼두회체험마당 전통민속놀이체험마당	체험관(전통문화체험마당 등) 전시관(유교박물관 등) 농특산물전시판매
경연대회 행사	이원익, 강빈선발대회 향토인물그리기대회 희망백일장	성호사생대회 성호글짓기백일장	청소년국악경연대회 전국한시백일장 청소년사생대회, 백일장 UCC 컨테스트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한마당, '둔배미놀이', '천장행렬'

오리문화재의 경우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지역의 어울림 한마당축제라는 목표에 맞게 유명 예술인 초청 공연과 향토인물 민회빈강씨 인형극, 기형도 시인을 기리는 포엠콘서트 등을 기획하였고, 성호문화재의 가장 큰 볼거리는 둔배미놀이 보존회가 준비한

‘둔배미놀이’ 시연이다. 경기지역에 남아있는 유일한 배치기소리를 들을 수 있는 둔배미놀이는 안산공대와 공단역 사이에 있던 둔배미 포구에서 전승되어 온 민속놀이이다. 포은문화제의 백미는 ‘개성 풍덕에서 고향인 경북 영천으로 천장하던 중 명정이 날아 지금의 묘역에 떨어진 것을 하늘의 뜻으로 알고 이곳에 묘를 모신’ 설화를 가진 천장행렬이다. 천장행렬은 취타대, 선소리꾼, 상여행렬, 만장기, 풍물단 등 500여명의 시민이 참여한다.

다양한 체험행사로 즐기고 느끼기

오감으로 즐기는 현대 축제의 성격상 다양한 체험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오리문화제는 평생학습축제와 함께 진행하기 때문에 문화원이 준비한 다양한 전통체험행사와 더불어 평생학습센터, 주민자치센터, 시민단체가 진행하는 다채로운 부대행사가 단연 돋보인다. 성호문화제에서는 ‘이익 선생이 고기에 버금가는 영양가를 가진 콩으로 굶주린 백성들의 식생활이 개선되기를 바라며 결성했던 삼두회’를 기리는 콩나물시루 물주기, 두부 콩갈기, 미니 메주만들기 등 역사와 ‘웰빙’이 함께하는 체험행사가 눈에 띈다. 포은문화제는 유림조명전, 유교박물관, 상여체험 등 유교체험행사를 강조하고 있다.



축제의 주제를 가지고 진행되는 각종 경연대회는 시민들의 참여를 더욱 확대시켜주는 효과가 있어 중요한 프로그램 중의 하나이다. 3개의 문화제에서 청소년 백일장·사생대회를 공통으로 진행하고 있고, 오리문화제는 어린이 이원익·강변 선발대회가 열린다. 포은문화제에서는 전국한시백일장과 용인청소년국악경연대회를 개최하여 축제의 의미를 더욱 풍성하게 하고 있다



경제성, 관광성 보다는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한 축제로....

앞에서 살펴본 오리문화제, 성호문화제, 포은문화제가 경제성, 관광성을 지향하는 외부지향형이라기 보다는 지역민들의 애향심과 역사의식을 심어주는 사회문화적인 성격이 강한 내부지향형의 축제라고 볼 수 있다. 축제가 놀이로서의 특징만을 강조할 때 경제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그것이 소비적인 행위일 뿐이다. 반면에 제의로서의 특징까지 포함한 축제는 재생산을 목표로 하는 투자요 삶의 풍요를 위한 문화적 자산이 된다. 도시화·산업화가 이루어진 사회나 지역공동체의 경우 공동체의 전통성이 존재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제의로서의 특징을 갖출 사회적 여건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리문화제, 성호문화제, 포은문화제가 현대인들에게 나라는 원심력을 우리, 내고장이라는 구심력으로 승화시켜 현대적 의미의 지역공동체 회복을 통해 지역 구성원으로서의 동질감과 지역정체성의 확보라는 지역 통합의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 축제이기에 더욱 더 희망을 갖게 해준다.





2010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

한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 31개 시·군 문화원 후원금 협찬

2010 유네스코세계문화 예술교육대회'가 지난 5월 25일에서 28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었다. 유네스코 본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대회조직위원회 및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공동 주관한 이번 대회는 '예술은 사회성을, 교육은 창의성을'이라는 슬로건 아래 4일의 대회기간 동안 전 세계 129개국 약 2000여명의 문화예술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번 대회에

는 영부인 김윤옥 여사와 정운찬 국무총리,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차관 등 국내 주요인사와 이리나 보코바 유네스코 사무총장, 데이비드슨 험번 유네스코 총회의장 등 유네스코 본부 주요인사, 15개국 문화부 및 교육부 장관, 문화예술분야 전문가 등 110개국 3000여명이 참석해 '예술은 사회성을, 교육은 창의성을'이라는 슬로건 아래 예술교육의 미래 비전과 전략에 대한 다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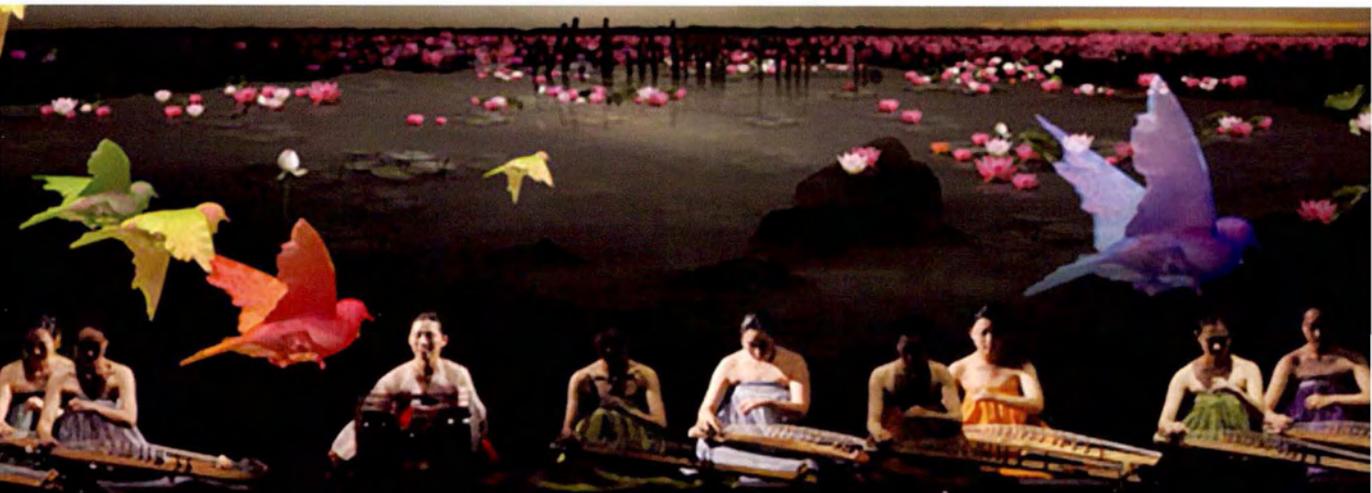


한 논의를 펼쳤다.

2006년 제1차 포르투갈 리스본 대회 이후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2차 대회는 사흘 동안 '실천', '설득과 지지', '역량개발'을 주제로 한 3차례의 전체회의와 '학교 안과 학교 밖의 예술교육', '글로벌 시민성, 문화 정체성과 예술교육', '환경과 예술교육', '연구를 위한 국제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을 주제로 25개 워크숍이 개최되었다. 또한 5개 권역별 지역회의, NGO 포럼, 청년 포럼, 예술교육과 문화 간 화해 등 다양한 특별회의도 개최되어 대회의 의미를 배가시켰다. 특히 대회 첫날 한국을 비롯한 16개국 문화부 및 교육부장차관 및 고위급 대표 30여명이 참석하여 진행된 고위급 원탁회의에서는 문화예술교육 확산을 위한 정부 부처 간 협력에 대해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부 간 협력에 대해 아나 마그레너 유럽위원회 교육문화국장의 기초발제가 있었다. 데이비드슨 헵번 유네스코 총회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원탁회의는 문화예술교육의 확산을 위한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을 환기시킴과 동시에 국제 파트너십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하는 자리가 되었다.

개막식에서는 김덕수, 안숙선, 국수호 등이 함께하는 '디지로그아트'가, 대회 전야제로는 '한-아세안 전통 오케스트라' 공연이, 환영만찬에서는 정동극장의 '미소' 공연단의 역동적인 한국무용 공연을 마련해 한국의 다채로운 문화예술을 선보이는 자리가 되었다. 특히 '디지로그 아트'는 아름다운 4D 홀로그램과 공연이 절묘한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예술의 중요성과 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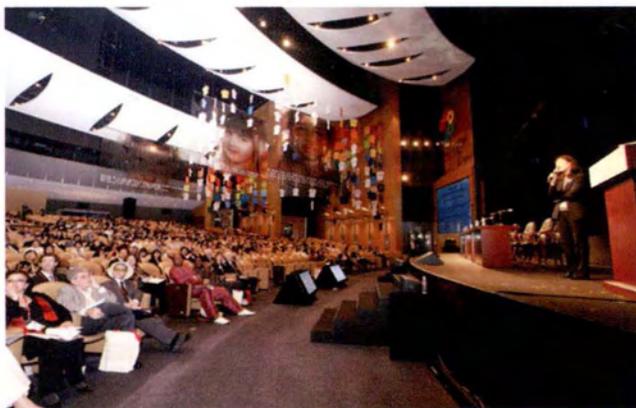
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여 많은 참가자들의 찬사를 받았다. 한편, 대회 중에는 2010개의 티셔츠를 활용한 '가슴과 가슴을 이어주는 T셔츠 네트워크(Heart to Heart T-Shirts Network)' 이벤트가 마련되어 대회 참가자들이 경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수익금 전액은 결핵이 번져가고 있는 아이티 난민들에게 전달된다. 이 밖에도 대회장에서는 국내외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정책과 사례 전시, 한국 문화예술 체험 전시, 문화예술교육 관



런 영상물 상영, 노르웨이와의 화상 미술 퍼포먼스, 세계청소년 미술전시 등이 마련되어 참가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폐막식에서는 2006년 제1차 대회에서 도출된 '예술교육 로드맵'에서 한발 더 나아가, 이번 서울대회의 여러 워크숍, 특별회의 및 고위급 원탁회의 내용과 유네스코 예술교육 로드맵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 아젠다: 예술교육 발전목표'가 제시되었다. '서울 아젠다'는 이번 대회의 공식 결과물로서, 예술교육을 지속가능한 교육으로 발전시키고 모든 이를 위한 양질의 교육을 확산시키자는 취지 아래 10개 목표 및 세부 전략을 마련했다. 이는 향후 각국에서 문화예술교육의 지속적인 실천을 촉구하고 성과를 점검하는 지표인 동시에, 각국 문화예술교육 발전의 실천 전략으로서 전 세계 193개 유네스코 전 회원국에 배포할 계획이다. 콜롬비아가 제3차 세계대회의 유치 의사를 밝힌 가운데,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





교육대회는 4년 뒤를 기약하며 4일간의 막을 내렸다. 이어령 대회조직위원장이 환송사에서 '4일 간의 기적'이라고 지칭하였듯, 이번 대회는 산업화, 민주화의 과정을 숨 가쁘게 달려 온 한국 사회가 선형적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 문화적 다양성과 상상력 제고를 위해 문화예술교육의 가치와 중요성에 주목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양질의 문화예술교육이 각국의 교육현장에서 뿌리내릴 수 있는 토양을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은 가운데, 서울 아젠다가 수사적 선언문에 그치지 않도록 세계 각국에 실천의 과제를 남겼다.

한편, 한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는 범 국가적인 차원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31개 시·군 문화원의 뜻을 모아 후원금을 협찬하였다.

경기도 전통예술 교육용 콘텐츠개발과 문화원 I



현재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전통예술

세상 사람들이 생김새도 성격도 똑 같다면, 과연 그 세상은 재미가 있을까?

세상살이가 다름이 공존하여 개성과 특성이 드러나고, 큰 틀에서 서로 존중하며 하나로 어우러질 때 살맛이 나는 법 아닌가. 문화예술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국가마다, 지역마다, 동네마다 유구한 역사와 환경 속에서 만들어진 독특한 전통예술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마다의 전통예술은 지역민을 하나로 엮어주는 정신적 보고이며, 정체성 형성의 지렛대이고, 더 나아가 창의성의 원천으로서 훌륭한 문화상품으로서의 가치를 내재하고 있다. 영화 "왕의 남자"와 "헤리 포터"를 보면 알 수 있지 않는가.

경기도지역 전통예술의 여러 자



료를 접하며 그 문화예술적 다양성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대표적인 경기판소리·경기잡가·경기굿·경기민요·전통무용 및 탈춤·농악 등과 더불어 31개 시·군에는 민초들의 삶과 함께해 온 저 마다의 설화가 있고, 노래가 있으며, 풍물과 민속놀이가 존재하고 있다. 이는 과거의 유물이 아닌 현재의 삶을 풍요롭게 해 줄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인 것이다.

경기도 전통예술에 대한 여러 연구자료집 및 보고서, 책자 등을 접하며 새삼 한 가지 의구심을 가지게 된다. 과연 이 자료들을 읽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 많은 발품을 팔며 어렵게 만들어 놓은 소중한 자료들이 서랍장의 장식품으로 먼지를 뒤집어쓰고 있지는 않은지, 도서관에서 극소수 학문하는 사람들이 뒤적이는 참고자료수준 이상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더 나아가 특히 전통민속예술은 책속에서 글로서가 아니라 연행되고 놀아질 때 진정한 가치가 발현되는 것인데 과연 얼마나 불려지고 놀아지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된다.

삶과 함께 호흡하는 무형문화의 가치 발견

보존과 전승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전승되지 않는 보존은 박물관의 유물과 같다. 그나마 유형문화는 그러한 보존을 통해 현재 삶과의 연결을 지속적으로 추구할 수 있지만, 전통민속예술과 같은 무형문화는 박물관의 유물과 같이 보존할 수가 없다. 즉 현재의 삶속에서 지속적으로 놀아질 때만이 그 가치가 발현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1996년 용인문화원에서 발행한 {내고장 용인-동부지역의 구비전승}이라는 향토문화자료가 용인지역에서 얼마나 읽혀지며, 구연(口演)되고 있을까? 2007년 고양문화원에서 발행한 {고양민요론}에서 소개된 노래들이 얼마나 불려지고 있을까? 2006년과 2008년 한국문화원연합회경기도지회에서 발행한 {경기도 모심는 소리의 양상과 민요권 上,下}에서 소개된 노래들은 어디에서, 얼마나 불려지고 있을까? 마찬가지로 한국문화원연합회경기도지회에서 주최하는 "경기도 민속예술경연대회"에 출품되었던 여러 민속놀이 및 민속예술작품들은 어디에서 놀아지고 있는 것일까? 아마도 국가 및 지방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소수의 놀이를 제외하고는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등장하는 사진에서나 그 형체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다.

물론 전통을 찾아 복원하고 정리하는 작업은 보존이라는 측면에서, 나아가 전승할 수 있는 내



용적 토대를 구축한다는 의미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거기에서 머무른다면, 생명력 없는 또 하나의 유물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없는 것이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전통민속예술은 현재의 삶 속에서 함께할 때 진정한 가치가 발현되기 때문이다.

- ① 구장터 민생이
- ② 쌍용거줄다리기
- ③ 소놀이굿
- ④ 마래리 거북놀이
- ⑤ 십이지신 불한당 물이 놀이
- ⑥ 명개안 새(어) 줄다리기(고양시)



아방리 줄다리기



용구재 이무기제



채석장 노동요

그렇다면 어떻게 현재의 삶속에 전승할 것인가. 가장 체계적이며 효과적인 방법이 교육이다. 전통농경사회에서와 같이 생활과 문화와 예술이 삶속에서 자연스럽게 하나가 된다면 굳이 교육이라는 형식이 필요치 않다. 생활 속에서 놀며 배우면 된다. 하지만 현대산업사회는 전통사회와 일이 다르고, 그에 따라 삶의 양식이 다르다. 따라서 의도 된 교육을 통해서 전통민속예술을 전승시켜야 하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서 교육이라는 전문가 양성의 교육이 아닌 보통교육으로서 학교교육 및 대중교육을 말한다.

아이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교육콘텐츠 개발 필요

교육이 가능케 되기 위해서는 크게 네 가지가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는, 현대 대중문화에 깊이 편입되어 있지 않고, 그에 따라 다양한 문화를 선입견 없이 받아 드릴 수 있는 시기인 유아시기부터 아동시기에 체계적으로 가르쳐야 하며 둘째로, 전통적 내용을 그대로 모방하여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아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즐겁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재구성 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여야 한다. 셋째는, 개발된 프로그램을 지도할 수 있는 교육자를 양성하여야 하고 넷째는,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다행스러운 것은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학교문화예술교육"이라는 사업을 통해 많은 국악강사를 선발하여(2010년 약 1,500명) 일선 초·고등학교에 무상 지원하고 있으며, 2009년 시범사업을 통해 2010년부터는 유치원에도 국악강사를(약 80여명) 지원해 주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국악강사 파견 제도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유아교육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2010년부터 "세대간지혜나눔"이라는 사업을 통해 전통예술강사를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를 위한 토대는 일정부분 갖추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학교문화예술교육"이나 "세대간지혜나눔"에서 진행되는 교육 내용은 교과서 중심이거나, 지역 고유문화의 특성이 반영되지 못한 표준화된 내용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지역 정체성에 근거한 전통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준비는 중요한 과제이다.

따라서 위의 네 가지 고려 사항 중 가장 시급히 추진해야하는 것은 두 번째 "현재의 아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즐겁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재구성 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이다. 큰 틀인 광역시도의 전통예술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지만, 가능하다면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것이 지역적 특성을 좀 더 선명하게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통진두레놀이



한강뱃놀이



심야대(말장박는)소리

교육용 콘텐츠 개발을 위한 경기도 전통예술자산 예시(민속놀이 및 설화를 중심으로)

경기도 시·군	민속놀이 및 설화
수원시	화성축성놀이, 사도세자의 능과 수원성 축조(설화), 송충이를 씹은 정조대왕(설화)
가평군	황포 돛배놀이, 호랑이와 싸워 이긴 장사(설화), 호환을 물리친 퇴계선생(설화)
고양시	맹개안 새(巳) 줄다리기, 십이지신 불한당 물이 놀이, 송포 불한당 놀이(설화), 왜적 물리친 노적봉 덕수할매(설화)
구리시	호미씻김 대동놀이, 아차산성의 유래(설화), 백제 개로왕의 죽음(설화)
과천시	무동답교놀이, 남태령고개 지명유래(설화)
군포시	둔대농요, 시화연풍, 수리산 지명 유래(설화)
하남시	거북놀이, 한강벚놀이, 김자점의 장사이야기(설화), 객산을 옮긴 마고할미(설화)
이천시	정승달구지놀이, 단드래 줄다리기, 3일 만에 쌓은 설성산성(설화)
안성시	남사당놀이, 바우덕이 이야기(설화), 몽고족을 물리친 버들애기(설화)
여주군	마래리 거북놀이, 고달사의 유래(설화), 가마골이야기(설화)
양평군	쌍거리놀이, 파자산성 유래(설화)
파주시	술이홀 태평12지놀이, 덕물산 촬영장군(설화), 천하장사 채동지(설화)
성남시	쌍용거줄다리기, 구렁이와 동침하고 낚은 임경업장군(설화)
양주시	소놀이굿, 호랑이 제물이 될 뻔한 박문수(설화)

특히 경기도의 전통예술 중 설화, 민속놀이를 중심으로 한 민속예술, 향토민요 분야는 각각의 영역으로도 교육적 가치가 높으며, 더 나아가 세 분야를 통합적으로 잘 구성하면 훌륭한 전통예술교육 콘텐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부분적이지만 위에 제시한 민속놀이와 설화는 교육연령 및 학제에 맞게 재구성하고 콘텐츠를 마련한다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며, 현재의 삶속에 살아 숨쉬는 민속예술이 될 것이라 본다. 수원의 초등학교에서 "화성축성놀이"가 진행되고, 고양의 중학교에서 "맹개안 새(巳) 줄다리기"가 놀아지며, 여주의 유치원에서 "마래리 거북놀이"로 재롱발표회를 하고, 파주의 어린이집에서 "술이홀 태평12지놀이"가 엄마·아빠 참여 수업에서 함께 놀아진다면 이 얼마나 아름다운 풍경인가. 이들이 한 날, 한 시, 한 곳에 모두 모여 서로 배우며 만든 놀이를 발표한다면 정체성 함양과 더불어 다양성을 체험하는 훌륭한 교육적 의미도 있을 것이다.

그 멋진 모습을 상상만 하면 안 된다. 교실에서 준비할 수 있고, 아이들이 흥미롭게 스스로 창의적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재구성하고, 교육자료를 만들며, 음악을 만들고, 지도강사연수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투자를 해야 한다. 특정지역을 설정하여 시범적으로 만들어 보아 교육현장에 적용해 보는 방법도 있다. 시작이 반이니.



① 화성축성놀이
② 향포돛배놀이



민속놀이, 설화, 향토민요, 농악으로 다양하게 활용

위의 예시에서는 몇몇 지역을 중심으로 "민속놀이"와 "설화"만 설정 하였는데, 서두에 기술했듯이 경기지역은 다양한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으니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다른 여러 영역의 전통예술을 활용해야 할 것이다. 노동요를 중심으로 한 향토민요와 대부분의 시·군에 전승되고 있는 농악(풍물)도 그 중에 하나이다.

지방문화원의 역할은 향토예술의 보존과 전승, 각종 행사를 통한 지역민의 결속 강화, 수준 높은 공연 개최를 통한 삶의 질 향상, 다양한 강좌를 통한 문화예술 대중화 실현 등을 통해 지역문화 활성화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 중 교육사업은 공연과 같이 즉각적으로 반응과 성과가 드러나지 않지만 중·장기적으로 지역정체성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예술활동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임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문화원을 좀 더 젊게 만드는 방법이기도 하다.



전 송 배

(사)한국아동국악교육협회 회장
중앙대학교 국악교육대학원 출강교수
(재)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 전통예술강사
교육용 국악기 현황 조사연구 책임연구원
(저서) 유아국악교육(2003, 양서원)

단 오절은 우리민족의 삶 속에서 가장 의미 있는 4대 명절(설, 추석, 한식, 단오) 중 하나이다. 일명 수릿날, 천중절, 중오절, 단양이라고 불린다.

음력 5월 5일 단오가 되면 일년 중 가장 양기가 왕성해 남자들은 씨름을 하고 여성들은 밖으로 나와 그네를 타고 바람을 쐬는 날이었다.



①

②

③

① 신윤복 「단오풍정」

②~③ 평택문화원 '2010 소사벌단오제'

평택문화원



시민들과 함께하는 '2010 소사별단오제'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로 평택시의 자랑인 '평택농악' 판굿과
지난해 경기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평택민요'의
두레놀이 공연 펼쳐.....

시흥문화원

잊혀져가는 우리민족 고유명절인 단오의 의미를 되살리는
전통문화와 만나는 단오날 행사 가져...



④~⑥ 평택문화원 '2010 소사별단오제'

⑥~⑦ 시흥문화원 2010 전통문화와 만나는 날 '단오제'

안양문화원



제29회 안양단오제는 그네뛰기, 씨름, 줄다리기, 제기차기, 새끼꼬기 등 5개 종목에 걸쳐 안양시 각 동을 대표하는 선수와 일반시민 등 3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대향전으로 펼쳐졌다.

- ①~③ 안양문화원 제29회 안양단오제
- ④~⑥ 하남문화원 제1회 하남단오제



하남문화원

단오절 전통놀이문화와 체험대회를 통해 어린이들과 시민들에게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를 갖게한 「제1회 하남단오제」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어른다운 어른으로 거듭나다.”

28
29

예절 바른 실천

2010 성년의례 및 전통 관.계례 시연

관 : 시흥문화원 / 후원 : 시흥시 일시 : 2010. 6. 12 14시 / 장소 : 시흥시 영모재 협력 : (사)에명원



평생의 행로를 준비하는 성년의 날

‘성년의례’



- ①~② 동두천문화원 성년례
- ③ 시흥문화원 성년례
- ④ 평택문화원 성년례



성년례는 한국인의 일생의례인 관혼상제(冠婚喪祭) 중 첫 번째 관문 성인이 된 남자에게는 관(冠)을, 여자에게는 비녀를 꽂아주는 관례(冠禮)와 계례(笄禮) 진행





에코피아 어르신 문화나눔봉사단 (문화학교 어르신무용단, 주부무용단, 경기민요반)

문화와 접촉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찾아가는 문화활동
늘고 병든 몸으로 노인복지시설에 수용된 어르신들을 위한 즐거운 시간 마련



남양주문화원

역사와 문화가 있는 '도농역 작은쉼터' 오픈식

잊혀져 가는 우리문화와 역사를 시민들과 청소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농협중앙회 남양주지부와 코레일의 협조로 남양주의 역사와 문화에 관한 책을 비치하였고, 앞으로 도농역뿐만 아니라 남양주 관내 중앙선과 경춘선에도 작은쉼터를 설치할 계획





성남문화원

둔촌 이집 선생과 만나는 각종 행사 개최

고려 말 성리학자로 존경을 받아온, 둔촌 이집 선생을 추모하기 위해 제1회 둔촌문화제, 둔촌청소년백일장, 둔촌한시백일장, 중국둔촌백일장, 둔촌이야기자리 등 다채로운 행사 개최





이천문화원

제24회 이천도자기축제 23일간의 <행복한 도자여행>

제24회 이천도자기축제가 창의도시, 행복한 도자여행이란 주제로 열려 가족단위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도자체험 및 전시, 공연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23일간의 축제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천문화원은 상설무대공연 위탁사업으로 <줄광대 김대균의 재미있는 줄타기> <이천 거북놀이>를 포함한 전통 민속공연, 퓨전국악공연 등 13개 단체 16회 공연을 진행하여 관람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화성문화원

전통모내기 재현 행사

농촌 생활문화 체험의 일환으로 사라져가는 전통모내기를 가시리마을에서 재현하여 마을 축제와 도시민의 전통문화 체험의 장으로 많은 호응



문화품앗이, 성남문화통화 ‘넘실’

1. 지역통화제도

세계화의 영향으로 한국뿐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 거대 도시를 제외한 군소 지역들이 급속하게 경제적 활기를 잃어가고 있다. 특히, 한국사회는 이제 저성장 고령화 국가로 본격 진입하고 있어, 위기관리 측면에서 시민들의 주체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런 지역 침체 현상과 사회적 양극화를 극복하고, 지역의 자본과 인력이 지역 안에서 건강하게 순환하도록 돕기 위해 지역통화 또는 지역화폐를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사례들이 국 내외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지역통화운동이란 서구사회 중심으로 시작하여 전 세계의 3000여개 지역에서 실험되고 있는 새로운 지역사회 운동이다. 지역통화는 한정된 지역에서만 통용되는 화폐를 사용하여 그 지역 내의 돈을 순화시킴으로써 경제의 안정화와 활성화를 꾀함과 동시에 글로벌 경제로 인해 붕괴되고 있는 지역공동체를 구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역화폐운동은 노동력과 물품을 가상의 지역화폐를 매개로 교환 거래할 수 있도록 체계화 하려는 일련의 노력으로서, 회원간에 돈 없이도 재화와 서비스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시작되었다.

지역화폐는 소위 ‘공동체의 돈’ 이라고도 말해지는데, 그것이 ‘통화’ 라든가 ‘돈’ 이라고 불리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지역화폐는 우선은 경제적인 미디어, 경제적인 조직원리에 기반하고 있다. 그러나 그 이상의 것, 즉 윤리적인 측면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호혜적 교환을 통해서 상호부조적 공동적인 관계나 윤리를 재건한다는 목적이 경제적 목적에 우선한다. 이러한 지역화폐가 가지는 특징은 시중의 화폐(법정화폐)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 법정화폐는 어디서나 사용될 수 있지만 지역화폐는 한정된 지역내에서 회원간만 사용 된다.
- 법정화폐는 항상 희소하지만 지역화폐는 필요한 만큼 언제나 적절하게 만들 수 있다.
- 법정화폐는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돈을 적게 가진 사람을 지배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도 하지만, 지역화폐는 권력행사나 지배의 수단이 되지 못한다.

	법정 통화	지역 통화
경제학적 기능	가치척도, 교환, 가치저장	매개(가치척도 및 교환)
화폐의 형태	현금통화, 예금통화	지폐발행형, 집중관리형
이자	유이자로 가치증식	무이자
시간개념	지분축적을 위한 투자	없음(소비의 한계)
통화시장	주류 경제	대안 경제
공간개념	지역화에서 세계화	세계화에서 지역화
인류학적 기능	외부화폐기능(교환)	내부화폐기능(상호보완)
발생영역	공동체와 공동체간의 접점	공동체 내부
사용동기	편리성, 신뢰(신용)	상호보완, 감동
가치기능	절대가치	상대가치

지역화폐는 1983년 마이클 린턴에 의해 시작되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오래 전 과거에도 많은 사례가 존재하였다. 지역화폐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것은 1832년 린턴에서 오웬이 실시한 노동증권운동(재화를 생산하는 평균적 노동시간이 표시된 노동증권을 매개로 생산물을 거래한 것인데, 평균적 노동시간의 산정이 자의적으로 되어 불평등을 초래한 데다가, 상인이 개입되면서 투기가 발생하는 등의 이유로 오래 지속 되지는 못했다. 니시베 마코토, 2002)이 있으며, 이후 1930년대 세계 경제 대공황시기에 독일, 오스트리아, 미국에서 상당히 광범위하게 사용 되었다.

대공황 후의 불황 속에서, 실업자가 급증하고 큰 금융기관이 무너지고, 중소기업도 대량 도산하면서 지역화폐는 그들 지역 스스로의 지역거래를 장려하기 위하여 지역수표(Banknote)를 발행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특히, 1930년대 오스트리아의 지역화폐 Worgl은 300개 이상의 지역에서 사용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역화폐는 국가통화에 대해 대안제도로 위협한다는 이유로 국가은행이 법적절차를 취함으로써 사라졌다.

하지만 1980년대를 전후하여 지역화폐는 새롭게 전세계적으로 부활하였다 이러한 현대적 지역화폐의 부활은 1983년 마이클 린턴에 의해서이며, 현재 전세계적으로 3,000여개 정도의 지역화폐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009년 현재, 공식적으로는 영국에 약 270개 지역화폐 시스템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프랑스 300개, 호주 250개, 미국 110개, 이태리 100개, 네덜란드 90개, 독일 90개, 뉴질랜드 57개, 벨기에 29개, 캐나다 27개, 오스트리아 19개, 스위스 1개, 스웨덴 14개, 노르웨이 7개, 덴마크 3개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두레, 품앗이, 계가 있어 오래 전부터 서로 돕고 보살피고 나누고 협동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다. 지역화폐는 이를 오늘의 현실에 맞게 현대판 시스템으로 재구성한 다자간 품앗이로, 우리나라의 오랜 전통인 두레, 품앗이의 현대판이라고할 수 있다.

[표 1] 법정통화와 지역통화의 차이

형태	방법	사례
화폐발행형	지폐를 인쇄하여 유통	미국의 '이타카 어워즈', 시가현 쿠사츠시의 '오우미', 홋카이도 쿠리야마초의 '쿠린', 효고현 타카라즈카시의 'ZUKA', 시즈오카현 긴좌상점가의 '코인' 등
통장가입형	회원이 거래금액을 서로 통장에 기입하여 숫자의 거래만으로 가공의 통화를 유통시키는 형태로 자기 통장을 관리하거나, 사무국이 참가자의 구좌를 집중 관리	홋카이도 시모카와초의 'LETS Fore', 치바시의 '피넛츠', 요코스카시의 '레인보링', 교토시의 '교토레츠', 아이치 와카마츠시의 '레츠(LETS) 아이즈' 등
수표형	화폐발행형과 같아 보이나, 뒷면에 주인이 차례로 사인을 하는 형태로 속인성이 강하고, 거래 당사자의 사인이 있을 때 비로소 유효	멕시코의 토라록
복합형	통장가입형 및 수표형의 병용 형태가 많	영미의 'LETS' 및 독일의 '교환링' 이 사용

국내에 지역화폐가 도입된 것은 녹색평론에서 1996년부터 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지역화폐의 중심철학과 운영원리 그리고 비교적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외국의 지역화폐 실태를 분석하는 글을 소개하면서 부터이다. 국내의 지역화폐운동은 1998년 3월 민간단체인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들'에 의해 전국을 단위로 하여 처음 시작되었으며, 이어 1998년 5월에 지역정보화 사업을 공익 법인체로써 인천 정보통신 센터에서 도입하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사이버 공간으로 운영하였다. 이 두 단체의 주된 목적은 지자체, 자원봉사센터 및 교회, 시민단체 등 기존의 자원봉사활동이나 학교활동에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도록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었다. 이상의 두 단체의 지역화폐제도 보급활동에 힘입어, 불과 1년 만에 전국에 지역화폐제도는 급성장하게 되었다.

이즈음 IMF 국제금융체제가 우리나라를 한창 누르고 있던 시기로, 지역화폐가 경제위기를 대처해 나가기 위한 대안경제운동으로 주목 받으면서 신문이나 방송, 그리고 시민단체들의 관심과 열기가 증폭되었으며, 주로 실업자 구제책의 일환으로 제시되었다. 이러한 관심은 시민단체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단체와 자치단체로 이어져 '품앗이', '기술도구은행' 또는 '교육통화' 등의 형



태로 대략 20개 내외로 확산되었는데, 이들 단체는 대다수 지역화폐 운영방식을 도입하고 있으면서도 성격은 저마다 차이가 있어 운영단체들의 접근방식에 따라 각각 공동체문화, 사회복지적 기능성, 또는 문화·교육 자원의 교환방 등이 강조되고 있다. 90년대 말 이후 지난 10여년 동안 전국적으로 약 30여개의 지역화폐제도가 운영되어 왔으며 이중 대전 한발레즈, 과천품앗이 등은 국내 지역화폐운동을 대표하는 모범사례로 알려지고 있다.



2. 성남 문화통화제도

성남문화재단은 지역통화 사업의 일환으로 문화통화 사업을 계획하였으며, 연구 사업과 시범 사업, 정책 대화 모임 등을 거치는 신중한 단계를 밟아 지난 2007년 9월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였다.

문화통화의 목적은 크게 보아 1) 성남시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시민 문화 복지를 위한 기반 시스템 조성, 2) 지역 문화 가치 나눔 운동으로 볼 수 있는데, 사업의 규모가 작은 현재 최우선 목표는 1)보다 2)에 치중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성남문화재단은 현재 이 사업의 중심에 문화통화 교육 사업을 두고, 교육을 통해 시민들이 문화통화의 가치를 인식하고 이를 매개로 하여 문화적 가치를 상호 교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현재 문화통화 사업 모델은 2007년 성남문화재단에서 발간한 '문화통화제 모델 제안 및 실행전략 연구 보고서'에서 도출된 3가지 실행 모델 중 1모델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계적으로 2모델과 3모델을 도입할 예정이다.



[그림 1] 성남문화통화 추진과정

[표 3] 문화통화 단계별 도입 모델

1모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랑방문화클럽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회원제 중심의 모델 · 성남문화재단이 사업 주도
2모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과 연계 · 주민협의회, 부녀회 등의 주민 주체가 사업을 주도 · 성남문화재단이 사업을 지원하는 형식
3모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지역적으로 문화통화를 보급 · 금융카드사 연계 모델 · 생활협동조합 등의 모델로 발전될 가능성

현재 성남문화통화의 단위는 1넙실(문화통화 단위)=1원의 기준을 정해두고 있으며 사랑방문화클럽 네트워크에 가입된 문화클럽들을 대상으로 문화통화 회원약관 및 가입원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나면 회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회원가입신청서는 사랑방문화클럽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문화통화 회원 및 사랑방공간현황은 아래와 같다.

[표 4] 문화통화 회원 및 사랑방공간 현황(2010. 7월 기준)

분류	총계	사랑방지정 현황
기관회원	11개	· 2007 : 사랑방 1호 만나교회, 2호 보바스기념병원, 3호 폴시티 갤러리 카페, 4호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 지정
개인회원	409명	· 2008 : 사랑방 5호 한국학중앙연구원, 6호 성남 노인보건센터 지정
클럽회원	73개	· 2009 : 사랑방 7호 수진동 성당, 사랑방 8호 헤리티지너싱홈, 사랑방 9호 열린공간 지정

문화통화 이용은 회원가입과 동시에 '문화품앗이 통장'이 발급되고, 문화통화의 가치 인식과 사용 방법에 대한 교육 시간을 갖는다. 문화통화 교육은 국내 성공 사례 참여자가 강사로 와서 사례를 소개한 후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문화통화 거래 실적의 기록 방법을 배우는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화통화 거래 품목과 활동은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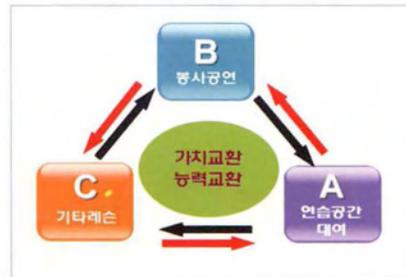
- 활동 내용 : 문화통화 교육 이수, 품앗이 학교 강의, 문화 자원봉사, 지역 통신문 활동, 홈페이지에 이벤트 후기 작성 등.
- 사용 품목 : 문화사랑방 이용, 품앗이 학교 수강 등.

문화통화 거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면, 문화예술클럽은 연습이나 발표를 위해 사랑방 공간을 넘실을 지급하여 이용하고, 사랑방공간은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예술 행사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쌓인 넘실을 사용하여 클럽을 초청할 수 있다.

현재 문화통화 활동은 총 3단계 중 1단계인 사랑방 문화클럽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회원제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2단계 초기 기반 조성이 진행 중인데, 1단계가 문화예술클럽의 현실적 요구를 수용, 도

시 전체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지역문화공간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시민의 문화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2단계 모델은 일상 생활 공간인 동네에서 이웃과 함께하는 문화예술을 통한 공동체 형성과 발전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2단계 동네모델은 단순히 문화활동에 필요한 요인들을 해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주민자치력의 배양과 주민 상호간 소통과 교류라는 사회적 목적이 보다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성남문화재단은 향후 3단계 모델로 이행하기 위해 다양한 지역사회 주체들과 연계하여, 문화통화의 지역 내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성남문화재단은 문화통화사업을 비롯한 사랑방문화클럽 네트워크구축사업, 우리동네문화공동체만들기 등을 통해 시민 주체의 문화예술이 활성화하여 성남시 전체를 시민의 창조적 역량이 가득한 문화예술 창조도시, 성남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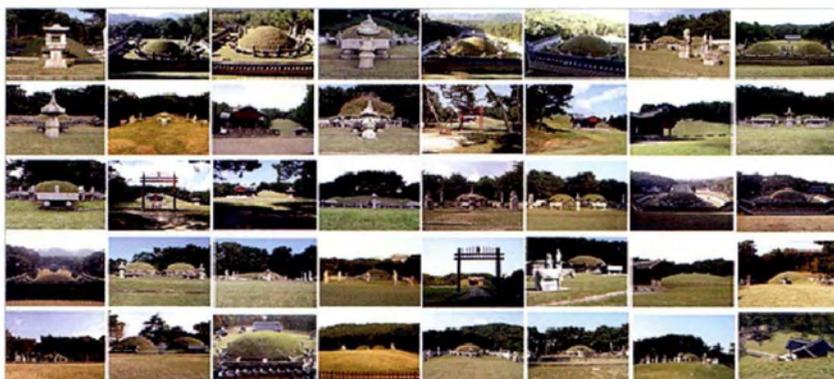
[그림2] 성남문화통화 거래 고환체계도



유 상 진
성남문화재단 문화기획부 과장

세계문화유산 조선왕릉

아는 만큼 보인다



조선왕릉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의 반열에 올라

유네스코는 작년 스페인 세비아에서 열린 제33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한국의 조선왕릉 40기를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기로 결정했다. 유네스코의 결정은 500년 동안 지속된 왕조의 무덤들이 고스란히 보존된 조선왕릉의 가치를 인정한 것이다.

즉, 조선왕릉이 단지 왕의 주검만이 묻힌 무덤이 아니라 조선의 역사, 건축양식, 미의식, 생태관, 철학이 담긴 문화의 결정체인 것이다. 산줄기의 풍수 명당에 자리잡은 조선왕릉은 자연 지형을 최대한 활용해 인공적 요소가 거의 보이지 않는 경관 때문에 '신(神)의 정원'이라 불린다. 유교 국가인 조선 왕들의 무덤이지만 왕릉 주변의 원찰(왕의 극락왕생을 비는 사찰), 봉분 주변 조각에 불교와 도교, 토착신앙의 철학과 세계관이 어우러졌다.

조선왕릉은 경기 일대와 강원 영월군에 조선시대 27대 왕과 왕비, 사후에 추존된 왕과 왕비의 능 40기가 남아 있으며 북한 개성에 있는 제릉(태조의 비 신의왕후의 능)과 후릉(정종과 정안왕후의 능)은 세계문화유산 등재 대상에서 제외됐다.

27대 왕과 왕비 및 추존왕과 왕비가 잠들어

조선 왕릉은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왕릉 가운데 가장 완전한 형태를 갖추고 있는 고유의 유적이다. 왕릉 개개의 완전성은 물론이고 한 시대의 왕조를 이끌었던 역대 왕과 왕비에 대한 왕릉이 모두 보존되어 있다는 점에서 더욱 큰 가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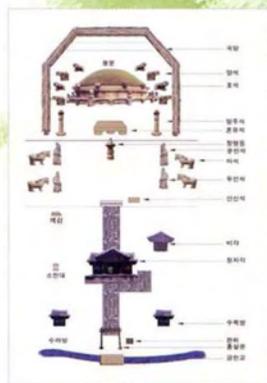
1392년 고려 왕조가 막을 내리고 탄생한 조선 왕조는 이후 1910년까지 무려 519년이라는 장구한 세월을 이어갔다. 이처럼 하나의 왕조가 5백 년 이상 지속된 것은 매우 보기 드문 유례이다. 이러한 유구한 역사를 가진 조선 왕조에는 27대 왕과 왕비 및 추존왕과 왕비가 있는데, 이 왕족의 무덤을 조선 왕릉이라 한다.

조선왕릉의 조영 법칙과 공간 구성

조선시대 왕릉은 시간이 흐르면서 일정한 형식을 갖추게 되었다. 그 형태는 능에서 정기적으로 치르는 각종 제례 절차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적절한 모습으로 이루어졌다. 왕릉은 다른 주변의 시설로부터 격리시켜 신성함을 유지하기 위해 두 겹 정도의 산으로 둘러싸인 곳에 자리 잡았으며, 능 근처에는 제례를 준비하는 재실을 마련하였다.

재실을 지나 숲길을 따라가면 물길을 가로지르는 돌다리를 만나고, 능역을 상징하는 홍살문을 통과하여 능역의 중심부로 접어들게 된다. 봉분 앞에는 다양한 석물과 문, 무석인 등의 기본적인 구성이 갖춰진다. 조선 왕릉은 이러한 기본적인 구성을 유지하면서 지형조건, 시대적 배경 등에 따라 조금씩 변형되어 왔다.

조선시대 능역의 공간 구성은 죽은 자와 산 자가 만나는 공간인 정자각을 중심으로 3단계의 공간으로 나눌 수 있다.



진입공간, 전이공간, 능참공간

재실 등이 있는 진입 공간은 산 자의 공간이고, 홍살문을 지나 정자각과 수복방, 수라간이 배치된 곳은 왕의 혼백과 참배자가 만나는 성과 속의 공간이다. 그리고 언덕 위 봉분을 중심으로 곡장과 석물이 조성된 공간은 곧 성역의 공간이다.

진입 공간은 재실, 지당, 금천교, 홍살문으로 이어지는 공간이다. 제사를 준비하는 공간인 재실을 지나 명당수가 흐르는 개천을 따라 등글게 진입하면 작은 연못이 나오는데, 이는 당시 능참봉 및 능관리인들이 그들의 농토에 물을 대고 휴식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이었다. 조금 더 진입하면 금천교라는 돌



① 17대 효종 영릉의 재실 ② 16대 인조 장릉의 금천교
 ③ 16대 인조왕비 휘릉의 홍살문

로 만든 다리가 나타나는데, 이는 금천교 건너 왕의 혼령이 머무는 신성한 영역을 속세의 영역과 구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금천교를 지나면 능원이 신성한 구역임을 표시하는 커다란 문이 있는데, 이 문을 홍살문이라고 한다.

② 제향, 전이공간



① 수존 문조 침릉의 참도 ② 추존 원종 장릉의 수복방
 ③ 5대 문종 헌릉의 정자각 ④ 17대 효종 영릉의 비각
 ⑤ 11대 중종왕비 희릉의 예감

홍살문 앞에 서면, 얇은 돌을 깔아 만든 긴 돌길이 정면의 정자각까지 이어진다. 이 길을 참도라고 한다. 참도는 왕의 혼령이 이용하는 중앙의 큰 길과 살아있는 왕과 참배자가 사용하는 그보다 낮고 좁은 길, 즉 신도와 어도 2단으로 만들어진다. 참도가 끝나는 길에는 제사를 모시는 공간인 정(丁)자각이 있다.

정자각의 양 옆으로는 재실에서 준비한 제례음식을 데우는 등의 제례 준비 공간인 수라방과 능침을 지키는 사람의 공간인 수복방이 설치되어 있다. 제례 의식을 마치는 정자각의 서북쪽으로는 지방을 불태우는 소전대와 제물을 태워 묻는 예감이 배치되어 있다. 한편 정자각의 열린 후문으로 나오면, 왕의 혼령이 제향 후 봉분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에서, 앞쪽에서 이어진 신도가 짧게나마 계속 된다. 이밖에 원래의 산신에게 제사지내는 산신석, 수장된 왕의 업적을 나타내는 비각이 자리 잡고 있다.

③ 능침 공간

능침 공간은 왕릉의 핵심으로 봉분의 좌우, 뒷면 3면에 곡담이 둘러져 있으며, 그 주변에는 능침 공간은 왕릉의 핵심으로 봉분의 좌우, 뒷면 3면에 곡담이 둘러져 있으며, 그 주변에는 소나무가 둘러싸여 있어 위엄성을 강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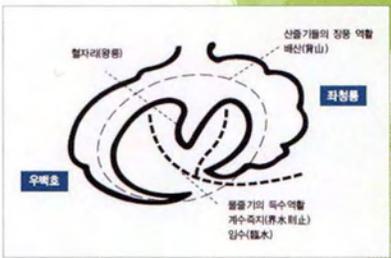
등근 봉분은 보통 방위를 나타내는 12면의 병풍석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병풍석에는 십이지의 그림과 글자 등이 표시되어 있다. 그리고 그 주변으로는 석양, 석호, 장명등, 망주석 등의 석물이 배치되어 있다.

왕릉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중계(中階)라 불리는 한 단 낮은 공간에는 문석

인과 석마가 한 쌍 배치되어 있으며, 그 다음 공간인 하계(下階)에는 무석인이 석마와 함께 공간을 구성하고 있다.

풍수지리에 입각한 왕릉의 터잡기

조선 왕릉의 터를 잡을 때에는 풍수상의 길지를 택하기 위해 신중을 다했다. 풍수에 밝은 지관이 몇 군데 후보지를 골라서 최종적으로는 임금이 가장 좋은 조건의 터를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관례였다. 현재 많은 왕릉이 자리 잡은 도성 안팎의 장소들은 각 시대 여건에서 판단한 가장 이상적인 장소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왕릉을 조영할 때에는 가급적 본래의 지형 조건을 훼손하지 않고 지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소한의 인공적인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세를 갖추었다. 일반적으로 조선시대의 왕릉은 풍수지리설에 따라 뒤에 주산(主山)을 등지고 산 능선의 언덕 끝부분에 있는데, 이 때 주산은 북쪽으로 보고 왕릉은 남면을 하고 있다. 남면을 하고 있을 때 좌측은 동쪽이 되며 우측은 서쪽이 되어 동쪽(좌)을 청룡(靑龍), 서쪽(우)을 백호(白虎)라 부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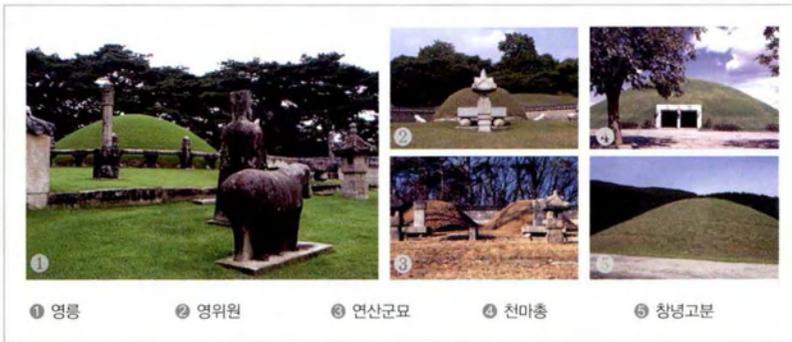


조선시대 능역은 한양으로부터의 거리, 그리고 주변지역과의 거리, 도로와의 관계, 경계, 주변의 산세와의 관계(풍수지리적 고려)를 통하여 입지를 선택하였다. 조선 초기에는 도성으로부터 10리 이내와 인가로부터 100보 이내에 묘지를 쓰는 것을 법전으로 금지하였다가 조선시대 말기에는 한양으로부터 100리 이내와 인가로부터 50보 이내에는 매장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현존하는 조선시대 왕릉의 위치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능은 서울지역과 경기지역(고양시, 광명시, 남양주시, 구리시, 파주시, 화성시, 김포시 등)에 위치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능이 반드시 서울지역과 경기지역에만 위치하는 것은 아니며 단종의 묘인 장릉은 강원도 영월군에, 태조의 6대 조부모의 묘인 준경묘와 영경묘는 강원도 삼척군에 있으며, 사후 추존된 왕을 포함한 10기의 왕릉은 북한에 있다.

능(陵) 원(園) 묘(墓) 총(塚) 분(墳)의 차이

왕족들의 무덤은 묻히는 사람의 신분에 따라 능, 원, 묘로 구분할 수 있다. 능(陵)은 통상 제왕(帝王)과 왕후(妃), 원(園)은 왕세자와 왕세자비 또는 왕의



사친(私親)의 무덤을 말하며, 그 외 왕족의 무덤은 일반인과 같이 묘(墓)라 불린다. 왕에서 군으로 격하된 연산군과 광해군의 무덤은 연산군묘, 광해군묘와 같이 불리는 반면, 추존된 원종이나 덕종의 무덤은 장릉, 경릉 등 능으로 격상하여 부르고 있다. 이 밖에 누구의 무덤인지 알지 못하지만 벽화나 유물 등 특징적인 것이 있을 경우 총(塚)이라 하고, 유물이 없고 주인공도 모르면 분(墳)이라고 한다.

경기도지회

제8회 경기도청소년민속예술제



- 일 시 : 2010. 9. 9(목)~10(금)
- 장 소 : 시흥시 실내체육관
- 행사내용
 - 경기도 31개 시·군 청소년 민속경연대회
 - 민속놀이, 민속극, 민속무용, 민요 등

경기도문화원 사무국장협의회



- 일 시 : 2010. 6.29(화) 11:00
- 장 소 : 용인문화원 회의실
- 행사내용
 - 경기도문화원사무국장협의회 분기 회의
 - 용인문화유적투어

전국문화원 사무국장 워크샵

- 일 시 : 2010. 7. 9(금)~10(토)
- 장 소 : 대전 서구문화원

• 행사내용

- 주제별(메세나, 공모사업 등) 세미나
- 문화관광부·문화연합회 하반기 운영 방향 발표
- 분임토론

가평문화원

문화원극단

「제20회 경기아마추어연극제」 참가



- 일 시 : 2010. 8. 18(수)~22(일)
- 장 소 : 동두천시민회관 대극장
- 행사내용
 - 사생대회, 백일장대회, 휘호대회, 사진촬영대회
 - 관내 유치부, 초·중·고등부 학생

고양문화원

우리가락 우리마당 야외상설공연



문화원 캘린더

Calendar

- 일 시 : 2010. 6.~9(목) 16:00 ~ 21:00
- 장 소 : 호수공원 야외무대
- 행사내용
 - 퓨전국악 등 공연

광주문화원

제 6·7대 문화원장 이·취임식

- 일 시 : 2010. 6. 30(수) 16:00
- 장 소 : 광주버스터미널 2층 컨벤션홀
- 행사내용
 - 식전행사 : 대금, 가야금병주, 기타 연주, 바이올린 독주
 - 이·취임식, 축하연

과천문화원

부부끼리 문화체험



- 일 시 : 2010. 8. 12(목) ~ 8. 13(금) 1박 2일
- 장 소 : 전남 강진
- 행사내용
 - 관내거주 부부 20쌍

군포문화원

제6회 대한민국태을서에·문인화대전 시상식 및 전시회

- 일 시 : 2010. 7. 17(토) 15:00 / 7.16(금) ~ 7.30(토)
- 장 소 : 군포시문화예술회관 시청각실 / 전시실
- 행사내용
 - 한글·한문서예, 문인화 일반, 초중고등부 시상
 - 수상작품 전시

남양주문화원

제13기 남양주시 청소년향토순례단 역사유적답사



- 일 시 : 2010. 7. 21(수) ~ 7. 23(금) 2박 3일
- 장 소 : 남양주시 일원
- 행사내용
 - 1일차 : 흥릉, 유릉, 사릉, 봉선사, 광릉, 광릉수목원
 - 2일차 : 역사박물관, 팔당댐, 주필거미박물관, 다산 유적지, 실학박물관, 피아노폭포, 모란미술관
 - 3일차 : 우리고장남양주강의, 기행문작성, 물놀이

부천문화원



프린지 무대

부천문화원·문화의집 함께하는 문화공연

문화나눔콘서트

- 일시 : 2010. 9. 4(토) 19:00
- 장소 : 오정대공원 공연장
- 행사내용
 - 도리깨(난타), 중창단, 댄스 등 공연

성남문화원

제19회 성남사랑글짓기대회

- 일 시 : 2010. 7. 10(토) 14:00
- 장 소 : 성남시청강당(분수대)
- 행사내용
 - 일반부, 초·중·고등부

수원문화원

2010년 정조대왕 능행차길 체험순례



- 일 시 : 2010. 7. 25(일)~ 28(수) 3박4일
- 장 소 : 서울 ~ 수원
- 행사내용
 - 전국 초·중·고등생 250명
 - 정조대왕 능행차의 역사적 의미를 이해하고 **孝문화** 재조명
 - 순례코스 : 창덕궁 - 수원 화성 - 용릉

시흥문화원

시흥갯골축제 생활사유물전시



- 일 시 : 2010. 8.13(금)~15(일)
- 장 소 : 갯골생태공원
- 행사내용
 - 탈곡기 등 전통 생활농기구 등 전시

안산문화원

제2회 안산문화학교 예술공연 "에울림"

제20회 문화가족 작품전시회



- 일 시 : 2010. 7. 3(토)
- 장 소 : 안산예술의전당 달맞이극장, 전시실
- 행사내용
 - 문화학교 수강생 공연발표회
 - 문화학교 수강생 미술, 서예, 공예 전시회

문화원 캘린더

Calendar

양평문화원

제20회 백운문화제



- 일 시 : 2010. 9월 중
- 장 소 : 양평군민회관, 실내체육관
- 행사내용
 - 용문사령제례, 양평나물노래, 목도소리 공연
 - 백일장, 휘호대회, 사생대회
 - 문화학교 수강생 작품 전시회

하남문화원

제5회 작은음악회

- 일 시 : 2010. 8. 28(토) 19:00



- 장 소 : 문화원 앞마당
- 행사내용
 - 퓨전클래식 등

의정부문화원

우리고장바로알기 사업



- 일 시 - 2010. 6. 1 ~ 30, 9. 1 ~ 30
- 장 소 - 의정부 일원
- 행사내용
 - 대상 : 관내 31개 초등학교 3학년 전체학생
 - 탐방지역 : 의정부문화원, 의정부시의회, 하수종말처리장, 엄홍길전시관, 경기도과학교육원, 빙상경기장, 정문부장군 묘, 노감서원 박세당 고택 등

2015년 지방문화원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문화예술로 즐기는 인생의 황금기,
문화로 나누는 아름다운 세상”



어르신문화학교 사업

인생의 황금기를 문화예술로 즐기는, 어르신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입니다.



찾아가는 어르신문화학교 사업

어르신 동네의 마을회관이나 노인정에서도 어르신문화학교를 수강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문화나눔봉사단 사업

어르신문화학교 수강 어르신들이 공연단을 만들어 문화소외지역을 찾아 문화봉사를 펼칩니다.



어르신 생활문화전승 프로그램 사업

어르신들의 삶의 문화(생활문화, 생애문화, 경험과 지식 등)를 창조적 문화콘텐츠로 개발합니다.



어르신문화단체 사회적기업화 추진

어르신문화학교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어르신들께 일자리를 만들어 드립니다.

